

# 시·음악이 있는 감동의 문화 축제

## 선운사 선운문화제, 음악경연대회·학술대회 등 개최

동백과 꽃무릇, 시문화의 고장인 고창 선운사 선운사에서 시와 음악, 감동이 넘치는 문화축제가 열린다.

선운사(주지 법만) 선운문화제가 9월 25~26일 선운사 일대에서 개최된다. 선운문화제는 지역민들과 함께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가치를 문화적으로 승화시켜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는 축제의 장이다.

선운문화제에는 선운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 보은염 이운식, 범주 스님 달마전, 고현 교수의 현대불화전, 백파스님, 석전 영호 대중사 독립운동자료전, 백파사상연구소 학술대회, 선운사 전통차 시음회, 지역민이 운영하는 직거래장터 등을 개최한다.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산사음악회에는 국민가수 양희은, 백영규 등이 출연해 분위기를 북돋는다. 음악회에는 미당 서정주를 배화한 고장담계 '시와 음악이 흐르는 선운사의 가을'이라는 주제로 도종환 시인의 시낭송, 선운사 꽃무릇 시화전 입상작 낭송 등 선운사를 소재로 한 시와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예술과 전통예술의 만남을 시도한다. 그밖에



선운문화제가 9월 25~26일 고창 선운사에서 진행된다. 1600년 동안 매년 봄·가을 선운사에 소금을 공양한 보은염 이운식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도 고창퓨전국악단·선운사 동국사 연합합창단의 공연 등이 진행된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노래와 춤, 악기 연주 등 다양한 장기를 펼쳐 보일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의 넘치는 끼를 발산하는 멋진 무대가 될 전망이다.

선운사 장건주와 관련된 설화를 바탕으로 1600년을 이어온 보은염 이운식은 또 하나의 볼거리다. 또 범주 스님의 달마전과 현대불화전, 석전 영호의 독립운동자료전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다양한 문화 예술 잔치도 관심을 모은다.

화제는 검단 스님의 선운사 장건정신을 이어받아 주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라며 "선운사와 관계된 시와 음악, 문화 예술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를 열어가는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문화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주지직 두고 갈등 신도들 몸싸움

부산 소림사가 주지직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부산 소림사에서는 9월 3일 현 주지인 혜전 스님 측과 창건주 승계자라고 주장하는 종인 스님 측 신도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종인 스님 측은 4월 대법원으로부터 창건주 승계자로 승소판결을 받아 우석 스님을 소림사 직무대행으로 내세워 소림사를 인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지 혜전 스님 측은 "2005년 8월 조계종 법규위원회 결정에 따라 종인 스님을 창건주로 인정할 총무원의 결정은 무효가 됐다. 그 후 문도회의를 거쳐 정일 스님이 적법한 창건주 권한승계자가 됐고, 정일 스님은 혜전 스님을 주지로 임명했다"고 맞서고 있다.

다행히 이날 소동은 종인 스님 측이 물리적 해결보다는 법원 결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소림사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끝났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 우리지역 부부니혼자 전통장엄물의 '마법의 손' 이기환 대표

## 알아주지 않아도 끊임없이 정진

전통공예가 이기환(이심조형 대표)은 광주에서 '마법의 손'으로 통한다. 그는 전통장엄물을 호남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장인이다. 그의 손에서는 부처님, 동자스님, 탑, 호랑이 등 무엇이든 만들어진다.

그가 장엄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5년 전 한마을선원 광주지원(주지 혜월) 청년회를 다니면서 부터다.

"혜월 스님의 권유로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진 장엄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 선원에서 만든 것은 길이가 13m나 되는 용이었죠. 당시 1년 동안 회원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고생 무지하게 했지요. 하지만 그때만큼 즐거웠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용이 몸을 움직이고, 입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모두 깜짝 놀랐죠. 그야말로 대히트였어요."



이심조형 대표 이기환 전통공예가

처님의 등불 같지 않아요." 전체를 한지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한지를 통해 나오는 불빛은 아름답고 그 자체였다. 그가 전통장엄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극찬하는 이유다. 세상을 밝히는 부처님의 등불로 생각하던 그의 마음이 시작된 것이다.

이기환 대표의 작품은 일반인이 좋아하는 불교적·전통적 아이들부터 한국 불교의 대중화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는 그의 작업에는 몇 가지 변화에 따른 것이다. 첫째 철저한 도면화이다. 도면을 만들면 누구나 보고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다른 공예가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공문화 하는 것이다.

둘째, 대나무를 포기하고 철사를 사용한다. "어찌 보면 전통재료를 포기한 것 같지만, 실제로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작품을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으며 대형작품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 눈코 뜰 새가 없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에서 작품을 의뢰하기 때문이다. 2000년 들어 동생 이기성(광주 비엔날레 참여작가)과 참여하면서 그의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작업 주문치는 대부분 경성도나 자치단체이다.

"정작 광주에서 사업을 하는데 도리어 교세가 강한 경성도에서 주문이 들어오네요. 하하, 이쪽이 불교가 약하기는 약한가 보네요." 투박한 얼굴과 손에서 나오는 작품은 호남을 대표하고 한국을 대표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정작 잘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는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불교노인 복지의 대안 모색

### 부산불교연합 신도회 세미나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설동근)는 9월 7일 부산 안국불교대학에서 '부처님 가르침 속의 자비와 복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이 '불교경전을 통해 본 효사상과 노인복지 실천방향'을,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부산 불교연합회 회장)이 '부모은중경'과 사회복지와의 관련성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에 앞서 박경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산불교사회복지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특강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류기형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무량수노인요양원장 각우 스님과 이춘성 부산시사회복지관 협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했다.

설동근 회장은 "불교 사회복지가 그동안 이웃종교에 비해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나 봉사활동 등에 소극적이었던 자세를 반성한다"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통적 가치관인 인본주의와 생명존중, 경로효친사상 등 윤리·도덕 규범이 파괴되는 혼돈의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불교노인 복지의 대안 등을 모색코자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 "지구는 모든 생명이 주인입니다"

### 2010생명아카데미 광주생명나눔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지난 8월 28~29일 광주불교회관 법당에서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홍보도우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위한 '제3회 2010 생명아카데미'를 실시했다.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40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전체 14시간의 교육을 통해 △생명나눔실천본부 단체소개(이대중 홍보팀장) △불교적 관점에서 본 삶과 죽음(현지스님, 원효사 주지) △자원봉사의 중요성 및 자원봉사자의 자세(문수영,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의 강의를 이루어졌다.

광주전남지역본부는 8월 28~29일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홍보도우미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현지 스님은 강의를 통해 "이 지구는 모든 생명이 주인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생명나눔의 소중함을 알고, 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통해 삶의 주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아암백혈병과 장기기증을 소재로 한 동영상 본 후 이준영(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1년) 학생은 "처음

에 아무런 생각없이 왔지만, 생명나눔 홍보 동영상 보면서 많이 울고 반성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에 이어 참가자들은 광주 생명나눔의집 씨너스클럽버스 하남점에서 생명나눔홍보와 돼지 저금통을 분양하는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제8회 약천사 태(胎)중 아기(낙태·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로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고,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속의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2010년 10월 10일 일요일 오전 10시 (음, 9월 3일)
- 장 소: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양력 10월 10일 (음, 9월 3일)
  - 3재: 양력 10월 24일(음, 9월 17일)
  - 5재: 양력 11월 7일 (음, 10월 2일)
  - 기도회향(막재): 양력 11월 21일 (음, 10월 16일)
- 기도 동참비: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당일 천도재는 별도상담)
  - ※ 위패비, 아가웃 (무료)
- 준 비 물: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 7개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속을 합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이순수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 2) 49재를 올려서 천도에 주어야 합니다.
-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 4) 지장보살상을 사들 사는게 좋습니다.
- 5) 부처님을 조상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 천도재 준비관례로 미리 접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약천사 방생법회: 2010년 11월 28일 (음, 10월 23일)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입장 02)3391-8523 / 011-9002-8523